

## 지위향상 위한 母體로서 會 참여의 기회 강화



양호교사의 입장에서

동북중고 양호교사 정 미 옥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 보고 흐뭇하였던 일 피로웠던 일 시정 되어졌어야 할 일 등을 놓고 생각하여 보는 것은 누구나 같은 바 사업을 발전시켜 보고자 함에 있으리라. 이러한 견지에서 양호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중 평소 생각했던 몇가지를 들어 협회의 협조를 얻고자 한다.

첫째, 최저 18학급 이상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 상담 보건교육 건강평가 등을 실시하는 양호교사들의 임무는 타교사들의 몇배나 되는 업무량이라 하겠다. 그 임무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봉직하면서도 강사대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74년도 시교육위원회에서 조사된 통계자료는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양호교사만도 40%나 4,5년간 강사 TO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는 제교육을 이수하였을 시 상급자격에 관여되며 응분의 보상

을 받게 되어 있으나 양호교사들은 제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 모두 정신적인 교육으로 만족하여야만 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대부분의 기관장 또는 감독관계서 교육법 제75조 「양호교사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양호교사는 중, 고등학교를 접하여 담당하게 되며 학교보건사업은 계획수립에 그치고 교내에서 일어나는 돌발사고의 대처인 응급처치만으로도 매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로 양호실의 장학감사를 체육담당 장학사가 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호교사의 본연의 임무 수행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양호담당 장학사가 꼭 있어야겠다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은 제도적인 면이 시정되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서 협회는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양호교사들이 보람을 느끼며 봉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협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수교육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요구에 따른 적절한 사업으로 적극 찬동하는 바이며 또한 소의감을 느끼기 쉬운 양호교사들에게도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협회와의 유대확립과 상호협조를 이룰 수 있는 많은 기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